

농촌마을 주민의 경제생활실태 연구

고정숙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Economic Life of Rural Residents

JeongSook Ko

Researcher, Rural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ummar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on the economic life and financial state of rural inhabitants in case study 4 villages by questionnaire interview. To analyze the economic life of rural inhabita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91households and the SPSSWIN / ver12.0 was used for analyzing the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Most of them earned living expenditure themselves, over 15% inhabitants lived with their children supports. 2) Over 70% of them couldn't save at all, over 40% of them had debts except inhabitants in plain area. 3) The financial condition of rural inhabitants is very unstable, for the small and irregular agricultural income. Moreover, the ratio of national pensioner and payer are very low. 4) The present economic life compared with 10year ago and future prospect are pessimistic. And the elder household have much financial problems, they live in poor and inferior surrounding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search, the policy on support and assistance for economic life of rural inhabitants must be enlarged and enforced, and the financial program and education for them must be carried out nationwide and systematically.

주요어: 농촌주민, 경제생활

Key words: rural inhabitants, economic life, financial management

I. 서론

DDA / FTA 등 본격적인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농촌과 농업에도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경제생활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농업소득의 불안정성, 계절성으로 인해 농촌 주민들의 경제생활은 도시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고령화가 심각해진 농촌사회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도입이 쉽지 않고, 노동력의 부족으로 인해 영농에도 많은 어려움

이 있어 휴경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 주민은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경제생활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농촌 가계에서 경제적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 사용하는가는 소득의 증가만큼 중요한 일이다(박대식, 2005). 그러나 농촌 주부들은 재무관리능력이 부족하고(최윤지, 2004; 최은숙, 1995), 이 재무관리행동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소득과 자산을 보전하고 증식시켜 가계의 소득과 부를 극대화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

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이 있다(고정숙, 2000; 노자경, 1995; 손상희, 1998, 이길순, 1998). 따라서 이 연구는 1993년부터 대구·낙동강권역에서 추진해 온 농촌생활 장기변화연구 사례마을 주민의 경제생활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어려운 시기에 직면한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마을 개황

1993년부터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대구·낙동강권역에서 지대별로 각 1마을씩 총4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생활장기변화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선정의 기본방향 및 준거를 설정한 뒤 지역권을 선정하였다. 마을 선정은 연구팀에서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대구·낙동강권역(이정환, 1987, 연구에서 53개 변수를 고려하여 분류한 8개 지역유형 중 전통적인 농촌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임)을 정한 후 경지율과 답률을 비교 검토하여 지대별로 해당시군을 선정하였다. 그 후 해당지역 농업기술센터로부터 2~3개 예비마을을 추천받은 후 연구팀이 직접 후보지역을 방문조사한 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마을을 각 1마을씩 최종 선정하였다.

도시근교로 선정된 다사읍 이천리가 속한 달성군은 연구시작년도인 1993년에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였는데, 1995년 3월 1일 군 전역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고, 1997년 11월 1일에 다사면이 다사읍으로 승격되었다. 이천리는 다사읍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마을의 총 경지는 58ha이며 이 중에서 논이 49ha, 밭이 9ha로 대부분이 논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다. 주요 농사 작목으로는 수도작과 시설과채인 참외, 멜론, 파파야를 재배하고 있는데 참외와 멜론은 이웃마을과 단지를 형성하여 국내에서도 유명

한 생산단지로 알려져 있다. 참외, 멜론 재배 농가들은 작목반을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성주에서 참외농사철만 이천리로 이주하여 마을의 땅을 임대, 참외농사를 짓는 농가가 매년 2~3호 정도 참여한다. 농업노동은 대개 자가노력으로 충당하거나 품앗이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몹시 바쁜 때에 한해 일부 고용노동을 쓰기도 한다. 이 일을 하는 여자들의 품삯은 하루에 5만원 정도가 보통이며 이때에는 식사는 물론 새참과 술, 그리고 택시비까지 부담하기도 한다.

이 마을의 소득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인데 주 소득원은 농업이며 이외에 대구시내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상당수 있어 도시근교로서 입지조건에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4년 말 현재 추계추씨는 총 가구 65가구 중에서 48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이 마을의 지명인 이천(利川)은 동네 앞을 흐르는 강을 이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식으로 고쳐 利川리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평야지인 상주시는 삼한시대부터 유명한 저수지인 공검제가 있어 벼농사가 발달하였으며 예로부터 쌀, 누에고치, 꽃감이 유명하여 三白의 고장으로 불린다. 사벌면 원흥3리는 상주시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김천-충주-서울간 3번 국도에서 경천대 국민관광지로 들어가는 도로에 가까운 사벌평야 내 넓은 들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1993년 조사당시에는 상주군 사벌면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상주시에 통합된 지역이다. 주택의 배치는 타원형, 격자형으로 1930년 대홍수후에 계획적으로 형성된 마을이다. 총 경지면적은 260ha로 모두 경지정리(1971년)가 되어 있었는데, 논은 1구간에 908평씩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그 후 2001년 3,000평을 1구간으로 하는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이 이루어졌다. 토양은 점질토로 벼농사에 적합하여 수도작이 주작목이나 최근에는 벼 수매량의 축소와 낮은 수매가로 인해 소득이 낮아 1996년부터 포도나 배 같은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가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각 7호의 농가가 포도와

배 농사를 짓고 있다. 농업 이외에 상주시내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 중간지나 산간지에 비해 농외소득이 높은 편이다.

농업노동은 자가노동을 주로 하고 손이 부족할 때는 품앗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불문하고 1인 1일당 30,000원의 품삯을 주고 있다. 경지정리가 잘 되어 기계화가 용이하고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많아 위탁영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사일을 맡길 때는 1993년에는 908평 1구간당 이양준비에 15,000원, 이양에는 1구간당 35,000원 등 농작업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경비를 지불해야 했는데, 2000년대 들어 이양 등 농작업별 노임은 동회에서 결의하여 다같이 적용하고 있다. 농사일을 기계농으로 맡길 때 남는 인력은 다른 집이나 이웃마을의 포도밭이나 배밭에 가서 봉지당 20원씩 받고 일을 해주고 농외소득을 올리기도 한다.

의성군은 대구와 안동을 잇는 국도 5호선(구안국도)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5호선 4차선확장과 중앙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라 교통이 편리해진 지역이다. 봉양면 사부1리는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성읍에서 남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면소재지 도리원에서 북쪽으로 917번 지방도를 따라 안평방면으로 3km 지점 좌측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쪽에는 2001년 전체 구간이 개통된 중앙고속도로 구간 중 안동-대구간이 지나고 있으며 이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는 도리원에 위치해 있다. 논과 과수원은 마을앞 하천을 따라 펼쳐져 있고 밭은 주위의 낮은 산비탈에 형성되어 있다. 주요 소득원은 농업이며 도리원에 농공단지가 있으나 마을 주민 중 4~5명만 취업하여 농외소득이 낮은 편이다. 농작물은 의성의 주산물인 마늘과 벼, 고추, 사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재배규모가 적고, 농업인력도 고령 인력이 많아 신소득작목 도입이 적어 소득수준은 낮은 편이다.

마을의 주택배치는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뉘어져 산자락을 따라 길게 배치되어 있는데 두 마을간 거리는 500m가량 된다. 300여 년 전에 회안대군의 후손이며 전주이씨 시조 한(翰)의

29세손 李漆(義寧君派)이 이주해 와 전주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현재는 전주이씨 40-42세손이 생존해 있음). 공동활동으로는 매년 1월 1일 동회가 열리며, 5월에는 부녀회 주관으로 경로잔치를 열거나 효도관광을 추진하기도 한다. 동장은 동회에서 직접 선출하며 동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밖에 전주이씨 문중에서 드리는 제사모임이 두어 차례 있다. 농한기와 밤에는 노인들이 회관에 모여 고스톱을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등 노인들의 여가 및 생활공간으로 마을회관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산간지 마을이 위치한 문경시는 영남지방의 북서단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동로면 생달 1리는 점촌시내에서 북동쪽으로 56km 떨어져 문경읍 행정지방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은 해발 350m에 위치해 있으며 월악산 자락의 황정산 수리봉 아래에 있다. 마을 앞을 지나가는 지방도로는 1993년 이전까지만 해도 포장되어 있지 않아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었으나 1993년 이 마을까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 마을 앞으로는 큰 하천과 산이 가로막고 있어 일조시간이 짧은 지역에 속한다. 이 마을의 행정구역은 1993년 조사 시작년도에는 문경군에 속해 있었으나 1995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도농통합시인 문경시로 편입되었다. 이 마을은 윗마을(약사정)과 아랫마을(고불목)로 나뉘어져 있다. 약사정 마을에는 건립된 지 50여년이 된 기독교회가 있는데, 마을 주민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에 약사정의 10여 가구는 양육으로 신축을 하여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약사정 마을은 고불목 마을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 이 마을의 총 경지는 약 24ha인데 이 중에 논은 4.7ha, 밭은 14ha, 과수원 등 기타는 5ha로 밭이 논보다 많은 전형적인 산간지역이다. 주요 농작물로는 1993년에는 담배, 고추, 벼를 많이 재배하고 있었는데 영지머싯, 느타리머싯 작목변화를 거쳐 현재는 사과, 오미자 등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여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있다. 특히 오미자는 이 마을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노동인력은 자가노동을 중심으로 품앗이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나 고추 등 농작업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력을 사용한다. 2004년 현재 노임은 보통 남자의 경우 1인 1일당 4만원, 여자는 2만5천원이다.

2. 조사방법 및 내용

농촌생활장기변화연구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 및 가구상황 변화에 대하여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개별가구조사에서 미흡한 경우와 마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공식적인 지도자와 비공식적인 지도자 또는 조사내용에 따라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 없이 방문조사 하거나 관찰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생활실태에 관한 이 조사는 2004년 10~11월 농촌생활장기변화 연구팀이 사례마을을 방문하여 소득 및 부채현황, 가계관리, 경제생활전망 등에 관하여 질문지에 의한 면접조사와 함께 마을당 2~3호씩 심층면접조사를 하였다. 질문지는 연구팀과 관련전문가의 연구협의를 통해 확정하였으며, 조사자료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등을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설문조사 결과

가. 생활비 조달

생활비를 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응답자가 중간지를 제외하고는 74% 이상이나 되었는데, 노인단독가구가 많은 중간지에서는 자녀의 도움을 받은 가구가 20%나 되었다. 공적 부조인 국가보조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극히 적어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맞게 되는 대부분 농촌노인들의 불안정한 경제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비록 많지 않는 액수이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구에서는 가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간지에서는 국민연금을 불입하던 여러 가구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유언비어로 인해 해약하는 사태가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었다. 한편 다음에 제시되는 사례조사 4의 가구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젊을 때부터 농외소득 확보와 소득작목 전환을 통해 소득을 향상시킨 몇몇 가구는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영세농으로서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미래 생활비 조달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다.

<표 1>

생활비 조달방법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자신의 노력	47	78.3	33	78.6	34	68.0	29	74.4
자녀의 도움	7	11.7	8	19.0	10	20.0	6	15.4
국가보조	1	1.7	1	2.3	1	2.0	-	-
연금	-	-	-	-	1	2.0	-	-
복수응답	5	8.3	-	-	4	8.0	4	10.2
계	60	100	42	100	50	100	39	100

나. 가계비관리자

가계비 관리자를 살펴보면, 1993년에는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에서 부인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산간지에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높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여자노인독거가구가 많은 중간지에서 부인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약 63%로 나타났고, 도시근교는 부인이 51.7%, 평야지와 산간지에서는 남편의 비율이 각각 58.8%, 51.3%로 높게 나타났다<표 2>. 2004년 조사결과를 1993년과 비교해 보면 중간지를 제외하고는 가계비관리에 있어 오히려 남편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령층 부

부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남편이 가계비를 관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평야지 마을에 거주하는 고령층 노인가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가계비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인은 불만이 있지만 의례 경제의 주도권은 남편이 갖는 것이라니 하고 지낸다고 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편 도시근교에서는 부부공동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비교적 젊은 세대의 경우 대부분 부부공동으로 가계비를 관리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여겨진다.

<표 2>

가계비관리자

(단위: %)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93	'04	'93	'04	'93	'04	'93	'04
남 편	31.8	32.8	42.9	58.8	32.8	29.2	46.2	51.3
부 인	56.1	51.7	48.2	29.4	49.2	62.5	44.2	41.0
부부공동	3.0	8.6	8.9	5.9	16.4	6.3	7.7	7.7
기 타	4.5	6.9	-	5.9	-	2.1	-	-

다. 저축실태

대부분의 가구에서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평야지에서는 그 비율이 약 8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종류로는 주로 농가목돈마련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저축 금액 및 기간을 살펴보면 도시근교를 제외한 3마을에서 10~2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런 가구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로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

하여 그 불입금을 국민연금수령액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즉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국민연금과 같이 정기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월정액을 불입하기가 쉽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수확한 후 판매하여 납입할 수 있는 반년납이나 연납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저축기간은 모두 3년 이상이며 산간지에서는 7년 이상인 경우도 3가구나 되었다.

<표 3>

저축실태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저축 안함	48	80.0	39	86.7	38	70.4	32	82.1	
종류	농가목돈 마련저축	8	66.7	2	33.3	12	75.0	6	85.7
	저축예금	-	-	-	-	1	6.3	-	-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종류	적 금	3	25.0	2	33.3	2	12.5	1	14.3
	기 타	1	8.3	2	33.3	1	6.3	-	-
	계	12	100	6	100	16	100	7	100
월 저축액	10만원 미만	4	44.4	-	-	2	15.4	-	-
	10~20만원 미만	3	33.3	3	60.0	7	53.8	5	83.3
	20~30만원 미만	2	22.2	1	20.0	2	15.4	-	-
	30~40만원 미만	-	-	-	-	-	-	1	16.7
	40만원 이상	-	v	1	20.0	2	15.4	-	-
	계	9	100	5	100	13	100	6	100
저축 기간	1년 미만	-	-	-	-	-	-	-	-
	1~3년 미만	-	-	-	-	-	v	-	-
	3~5년 미만	1	20.0	-	-	6	60.0	-	-
	5~7년 미만	4	80.0	1	100	2	20.0	1	25.0
	7년 이상	-	-	-	-	2	20.0	3	75.0
	계	5	100	1	100	10	100	4	100

라. 부채실태

부채실태를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농가는 평야지에서 가장 적었는데, 이는 농기계구입 등 농자재 관련 부채가 평야지에서 다른 마을에 비해 많은 것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야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부채가 없는 가구가 40% 이상인데<표 4>, 대부분 노인단독가구에서는 최소한의 생활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저리의 영농자금조차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이용하지 않고 식량조달을 위한 자급자족의 소규모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층 노인가구가 많은 중간지에서 부채가 없다고 하는 비율이 약 65%에 이르는 것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노인단독가구 할머니의 월평균생활비를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대부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전기 및 전화료 등 공과금을 제외하고 한달 생활비 10만원 미만으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한기인 겨울에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점심과 저녁식사

를 함께 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화투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난방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편 몇몇 가구에서는 도시에 사는 자녀들의 신용불량문제가 농촌에 있는 부모들의 경제생활에 많은 부담이 되고 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례조사 2의 가구와 같이 도시에 사는 자녀가 카드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부모가 농협에서 용자를 내어 빚을 대신 갚아 주고는 용자금을 직접 상환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마을마다 몇 가구씩 있었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가 신용불량 문제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손자녀를 농촌의 조부모가 양육하게 되는 등 도시에 있는 자녀의 신용불량 문제가 농촌에 있는 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종종 나타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하겠다.

<표 4> 부채실태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빈도(호)	%	
부채 없음	37	57.8	21	37.5	37	64.9	20	43.5	
종 류	영농자금	14	51.9	17	48.6	13	65.0	19	73.1
	농 자 재	-	-	5	14.3	2	10.0	-	-
	주택자금	8	29.6	4	11.4	1	5.0	4	15.4
	선도자금	-	-	6	17.1	-	-	-	-
	가계자금	3	11.1	1	2.9	3	15.0	1	3.8
	기 타	2	7.4	2	5.7	1	5.0	2	7.7
	계	27	100	35	131.8	20	100	26	135.8
부채액	500만원 미만	7	31.8	6	27.3	8	57.1	9	47.4
	500~1,000만원	2	9.1	4	18.2	-	-	3	15.8
	1,000~1500만원	3	13.6	3	13.6	2	14.3	2	10.5
	1,500~2,000만원	3	13.6	4	18.2	-	-	-	-
	2,000만원 이상	7	31.8	5	22.7	4	28.6	5	26.3
	계	22	100	22	100	14	100	19	100
상 환	1년 미만	-	-	-	v	4	66.7	-	-
	1~5년 미만	2	22.2	8	57.1	-	-	-	-
	5~10년 미만	1	11.1	2	14.3	1	16.7	2	100
	10~15년 미만	-	-	-	-	-	-	-	-
	15년 이상	6	66.7	4	28.6	1	16.7	-	-
	계	9	100	14	131.8	6	100	2	135.8

마. 국민연금 수령 및 납입실태

국민연금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산간지에서도 44%로 가장 높았으나 평야지와 중간지에서는 10%대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박대식('04)의 연구에서 연금수령자가 14.5%인 것보다는 높았으나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이다. 또 60세 미만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비율도 산간지에서 가장 높았고, 평야지, 중간지, 도시근교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중간지에서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낮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전에 납입하다가 중도에 해지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표 5> 국민연금 관련실태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60세이상 수령	12	27.9	6	17.6	7	19.4	15	44.1
60세이상 미수령	31	72.1	28	82.4	29	80.5	19	55.9
60세미만 납입	7	41.2	5	55.6	6	46.2	3	60.0
60세미만 미납	10	58.8	4	44.4	7	53.8	2	40.0

바. 경제생활 변화(10년전 비교)

10년 전과 비교한 경제생활 변화를 조사한 결과, 중간지에서는 더 나아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는데(42.9%), 이는 자녀교육과 결혼 등 가계재정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일이 마무리되고 가정생활주기 중 축소기에

접어드는 가정이 많아 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도시근교에서 더 나빠짐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지리적으로 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인 빈곤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표 6>.

<표 6> 10년 전과 비교한 경제생활 변화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더 나아짐	14	23.3	9	20.5	21	42.9	11	28.9
비슷함	19	31.7	18	40.9	13	26.5	15	39.5
더 나빠짐	27	45.0	17	38.6	15	30.6	12	31.6
계	33	55	27	61.4	34	69.4	26	68.4

사. 향후 경제생활 전망(10년 후)

앞으로 10년 후 경제생활 전망을 질문한 결과 도시근교를 제외하고 세 마을 모두에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이 극히 낮아 10%에도 이르지 못했다. 도시근교에서도 1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특히 더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평야지와 산간지에서는 모두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일 낮은

도시근교지에서도 약 50%로 나타났다<표 7>. 이는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산물수입이 확대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증가하면, 농촌과 농업이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농촌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농촌 주민들이 고령화로 인해 그나마 짓고 있던 농사도 계속하기 어려운 실정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10년 후 경제생활 전망

구 분	도시근교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빈도(명)	%
더 나아질 것	9	15.3	1	2.3	3	6.1	1	2.6
비슷함	21	35.6	15	34.1	20	40.8	14	36.8
더 나빠질 것	29	49.1	28	63.6	26	53.1	23	60.5
계	30	100	16	100	23	100	15	100

2. 사례조사 결과

농촌 주민의 경제생활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마을별로 2~3호씩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다음과

같이 4가구의 경제생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가구가 농촌마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유형을 나타내 주고 있으므로 개략적인 농촌가구의 경제생활 면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1: 노인단독가구(빈곤형)
- 사례 2: 노인부부가구(자활형)
- 사례 3: 부부가구(자녀 부채 부담형)
- 사례 4: 부부가구(노후대비 및 경제적 자립형)

가. 사례 1

할머니가 남편이 사망한 후 10여 년간 혼자 생활하는 가구로 한우를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 판매한 수익으로 생활하고 있다. 최저생활을 하고 있지만 밭이 조금 있고 자녀가 있어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지 못하는데 건강보험료, 전화료, 전기세 등 공과금만 월 7~8만원 지출이 되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도시에 있는 자녀들도 일용직근로자, 영세상인 등으로 ‘제 살기에 바빠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체념조로 응답하였다. 젊었을 때에 농사일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관절염이 있고, 현재 신장이 좋지 않지만 치료비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심하게 아플 때만 보건소에 가거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건강보조식품을 큰 맘 먹고 할부로 구매하였는데, 복용해도 별 효과가 없으나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물품을 집에 그대로 두고 손해를 보고 있었다.

가족구성	할머니(67)
자 산	주택: 1,500만원, 밭: 200평, 논: 200평
소 득	한우 1마리: 200만원
부 채	없음
고정지출	공과금: 7~8만원 / 월
보험 및 저축	없음
경제생활변화	남편이 '95년 병으로 사망한 후 할머니 혼자 소를 길러 생활비를 충당하고 농사를 지어 생활함. 결혼하여 도사에서 사는 자녀들이 있지만 부모님을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하여 최저생활을 하고 있음. 젊은 시절 무리하게 농사일을 해 관절염이 심하지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 건강보조식품을 할부로 구매한 적이 있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 데도 방법을 몰라 반품처리하지 못함.

나. 사례 2

남편은 오랫동안 마을 이장을 해온 가구로 부부 거주 가구다. 2003년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양육을 신축하였다. 남편이 봄에 경운기사고로 손목을 다쳐 사과농사를 거의 폐농하다시피 했다. 평년에는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었는데, 품값과 농약대금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이 사과농사에서 거두어들이는 금액의 전부이다. 국민연금을 월 20만원 수령하는데 그 돈으로 농가 목돈마련저축(7년)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결혼한 작은아들이 자영업을 하다가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이것을 변제하기 위해 농협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아 주고 농사를 지어 갚으려고 했으나 기대했던 사과농사수입도 남편의 경운기사고로 인해 망치고 아들도 재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게 되자 부인은 고민스러워 잠이 잘 안온다고 했다. 자녀의 신용불량문제가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부모의 생활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구성	남편(61) + 부인(60)	
자 산	주택: 7,000만원, 논: 750평, 밭: 600평	
소 득	농업 소득 고추 500평: 500근×5,000원=250만원, 사과나무 500주: 150만원 벼 750평: 15만원×2가마×5마지기 =150만원, 콩 300평: 80만원	
	이전소득 및 기타	국민연금: 20만원 / 월(연240만원) 농외소득: 80만원
	계	950만원
부 채	영농자금 600만원, 가계자금 3,000만원 주택자금 2,000만원(3년거치 7년 상환) 총: 5,600만원	
지 출	공과금: 120만원(월 10만원) 의료비: 100만원 경조비: 100만원	
보험 및 저축	목돈마련저축(7년): 240만원 / 년 암보험: 4,500원 / 월	
경제생활 변화	가계비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으며, 결혼하여 도시에 사는 둘째아들의 카드빚 상환을 위해 가계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주었는데, 올 봄에 남편의 농기계사고로 사과농사(평년소득 800만원 이상)를 실패하여 걱정이 큼	

다. 사례 3

노부부가 밭농사를 주로 지으며 살고 있는 가구로 고추와 담배 농사를 해서 자녀 공부를 시켰다. 3남1녀 중 2명을 대학공부를 시키느라 몇 년 전까지 허술한 재래식 가옥에서 생활하면서 극도의 내핍생활을 하였다. 자녀가 취업, 결혼한 후 1,700만원을 들여 주택을 부분 개량하였다. 부부교사인 막내아들 내외가 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송금해 주고, 국민연금을 월 11만원씩 수령하며 농사를 지으므로 여유가 많지는 않으나 현재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저축해 놓은 노후자금이 별로 없으므로 건강하게 지내며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일이 이제는 힘에 부치고 또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여 장래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많다고 하였다. 2년 전부터는 담배농사를 포기하였다. 농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자녀가 있는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자녀가 모실 형편도 되지 않고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아 고독하다고 하였다.

가족구성	남편(70) + 부인(65)
자 산	주택: 2,000만원, 논: 600평, 밭: 2,800평
소득	농업소득 고추 1,000평: 1,000근×5,000원=500만원 벼 600평: 15만원×2가마×4마지기=120만원 콩, 팥 300평: 100만원, 무, 배추 200평: 50만원
	이전소득 및 기타 국민연금: 11만원 / 월(연 132만원) 교사인 막내아들이 월 10만원씩 송금해줌: 120만원
	계 1,022만원
부 채	없음
보험 및 저축	목돈마련저축(5년): 120만원 / 년
경제생활 변화	담배농사를 지어 3남1녀 중 아들 2명을 대학까지 공부시키느라 극도의 내핍생활을 함. 노후화된 주택을 자녀결혼 후 개량하였으며, 힘이 부쳐 2년 전부터 담배농사를 포기함

라. 사례 4

부부와 직장생활을 하는 출타자녀로 구성된 가구이다. 2남1녀 중 1남1녀는 출가하고 대구에서 차남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수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사를 지었으나 부부가 성실하고 마을의 다른 가구에 비해 비교적 젊은 가구라 8년 전부터 포도를 신소득작목으로 도입하고, 남편이 농사일 틈틈이 부업으로 보일러설치를 하여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자녀의 대학교육, 대구에 있는 큰아들의 주택구입자금도 지원하여 주고 논도 2,000평을 구입하는 등 경제생활이 많이 향상된 가구이다.

가족구성	남편(58) + 부인(52) + 미혼아들(직장인, 27)
자 산	주택: 4,000만원, 논: 6,500평
소득	농업소득 포도 1,000평: 2,000만원 벼 10,000평: 1,800만원
	이전소득 및 기타 (*03년까지 부업으로 보일러설치일을 함)
	계 3,800만원
부 채	과수농가영농자금 500만원
지 출	생활비: 30만원 / 월
보험 및 저축	보험료: 15만원 / 월(생명보험 3, 암공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경제생활 변화	가계비관리는 남편이 하고 있으며, 2남1녀 중 미혼인 막내아들이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함. 농사작목 전환(포도) 및 부업으로 경제생활 향상됨(논 2,000평 구입)

IV. 결 론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경제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촌생활장기변화 연구사례마을 4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면접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비를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가구가 중간지를 제외하고는 74% 이상이었으며, 노인단독가구가 많은 중간지에서는 자녀의 도움을 받은 가구가 20%이상이었다. 공적 부조인

국가보조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극히 적어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노후생활을 맞게 되는 대부분 농촌노인들은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평야지마을의 경우에는 60대 이상 할머니들이 해마다 10월-11월간 인근마을의 꽃감 꺾기에 참여하여 농외소득을 벌어들여 생활에 큰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농촌노인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일감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축과 부채실태를 살펴보면, 저축을 하지 않는 가구가 70% 이상이 되었으며, 저축의 종류로는 농가목돈마련저축이 가장 많았고 기간은 대부분 3년 이상이었다. 부채 실태는 마을 별로 차이가 많았는데, 농기계구입자금을 융자 받은 농가가 많은 평야지에서는 62.5% 가구가 부채가 있었다. 부채는 주로 영농자금으로 인한 것이며, 5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2,000만원 이상 부채가 있는 가구도 1/4 이상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 가구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저축과 부채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60세 이상 가구 중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가구는 산간지에서 44%로 가장 높았으나 평야지(17.6%), 중간지(19.4%), 도시근교(27.9%)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만원~20만 원 정도이나 고령의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60세 미만 가구 중에서는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비율이 산간지에서 가장 높았고, 중간지, 도시근교에서는 50% 이상이 납입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민연금 불입비율이 낮은데, 국민연금과 보험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경제생활의 변화를 살펴보면 10년 전과 비교하여 더 나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간지(42.9%)와 세 마을에서 모두 20%대 이상이었으나 향후 경제생활 전망은 아주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과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 내지 영농규모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례조사결과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어 최저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노인부부 가구에서도 불안정한 농업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히 출가한 자녀의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농촌의 부모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도 있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연령층 농가의 경우 영농작목 전환을 통해 자녀교육과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가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가계위험에 대비한 보험 가입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소비자정보가 부족하고 의식이 낮아 물품구입후 소비자불만이나 피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인 가계관리 및 소비자행동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촌 주민의 경제적 복지 향상을 위하여 범정부적인 대책과 아울러 관련연구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그 결과가 농촌 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정책 수립 및 시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 고정숙. (2000). **농촌 주민의 소비자의식 및 행동실태 연구**. 농촌생활과학 82, 24-29.
2. 김연정. (1998). **재무비율을 통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 한국소비자학회 '98학술발표회 자료집, 37-63.
3. 김주현 외. (2004). **재무관리의 핵심전략**. 청림출판.
4. 노자경, 최은숙. (1995). **빈곤농가 주부의 소비자기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58-68.
5. 박대식. (2005). **농촌노인의 경제활동 및 소득실태 분석**. 연구결과요약집 20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8-164.
6. 손상희. (1998).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1),

85-95.

7. 안충영. (1977). **한국농촌가계의 저축행태와 구매력에 관한 분석**. 중앙대학교논문집 21, 99-118.
8. 이길순. (1998). **농촌가계의 소비실태**. 농촌생활과학 73, 52-56.
9. 이정환. (1987). **한국 농촌지역의 유형구분**. 경희대학교 대학원.
10. 이홍식. (1987). **농촌가계의 경제활동 사례**. 새교육 387, 181-215.
11. 최기홍. (1987). **농촌가계의 소비행태에 관한 경제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최윤지, 최현자. (2004). **농촌여성 재무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가재정상태진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소비문화학회지 7 제4호, 65-79.
13. 최은숙. (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 경제자원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1), 73-84.
14. 최은숙, 노자경. (1995). **농촌빈곤가계의 경제문제 II, 소비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2), 151-161.
15. Bryant, W.K.(1986). **Assets and Debts in Consumer Portfolio**. Journal of Consumer Affairs 20(1), 19-35.

(2006년 11월 25일 접수, 심사 후 수정보완)